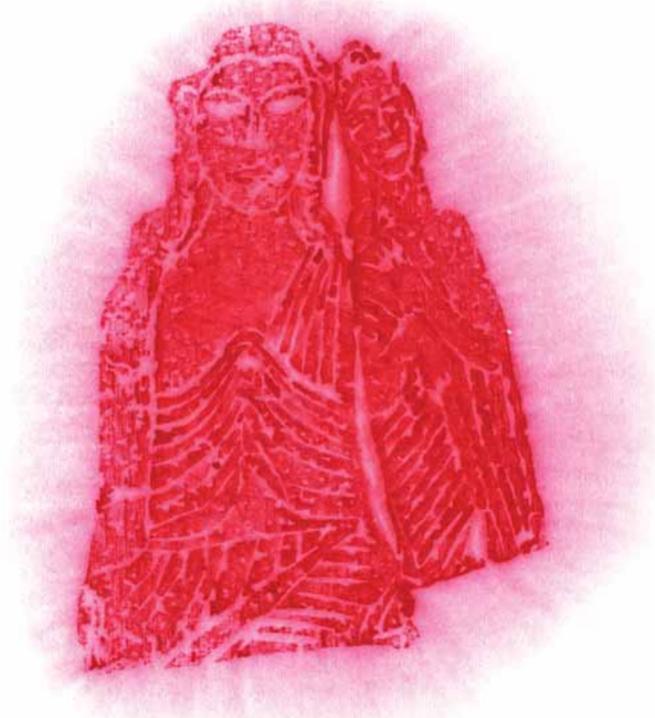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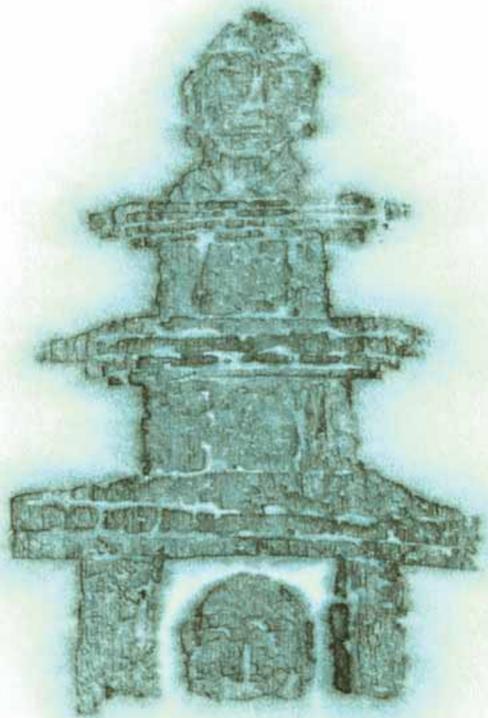


人爲와 자연의 천년 사랑,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19) 화순 운주사-김상연

현한 것 또한 운주사의 흔적들이다. 마음속 운주사를 그린 덕분에 2008년 프랑스 후양시 센마리틴(한국의 도의회)의회 미술관에서 개인전도 초대받았다.

지금도 운주사는 아늑한 안식처이다. 세상의 이러저러 일들로 혼란 할 때 그곳에 가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인간세상 위에 떠있는 평온한 별빛이며, 길을 비추는 등대다.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기법으로 운주사의 신비함을 표현해왔다. 지면에 발표한 그림들은 20여년을 고심한 작품이다.

다음은 운주사를 그린 그림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에 소리의 두께를 보다'.

“운주사에 갔다. 찬란했던 시절 절반의 人爲가 세월이란 짝을 만나, 온 것의 자연으로 가는 찰라 사이의 신비, 사물을 자연에 맡긴 대신 인위(人爲)는 자연의 영을 취했다. 우뚝 서 있거나 누워있는 것들의 인위는 이내 자연과 일치가 되어 천년의, 사랑이 되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가슴으로 통하는 작은 갈색 눈에 기억된다.

제 아무리 날렵한 지능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바람의 시간은 속성으로 흉내 낼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그것의 속성은, 물과 달과 해맑은 태양이 버무려져 여러 날이 지나서야 각각의 사물에 스며들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과연 장관이다. 온갖 사물들이 이것에 노출되면 맞춤복장을 하듯 각자의 정령들을 품는다. 바람과 사물이 만나는 지점에 물과 정확한 온도의 태양이 종매를 서고, 아주 조금의 인위적인 신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소리의 겹겹.

어떤 것은 사물의 겹겹기에 쌓여 거대한 몸통이로 미미한 본질을 숨기고, 어떤 것은 제 살을 깎아내고 깎여 날것인 채로의 황홀한 본질을 직접 드러낸다. 가끔은 거북하고 민망하지만 인간에게 직관적 깨달음을 주는 힘이 날것에 감춰져 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은 흘러, 나는 드라마 같은 기억을 더듬어본다. 화면에 보이는 거라곤 나무하나 석불하나.

하나, 그들과 한 몸이 된 온갖 바람의 소리와 흙의 냄새들... 언젠가는 바다였을지 모를 물의 흔적까지 갖췄다.

화면의 여백엔 어느새 사랑의 열매가 숨 쉬고 있다.”



김상연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중국미술대학 대학원 판화와 졸업
-마이클스츠갤러리 초대전 (독일 베를린), 일단원공간 초대전(북경 중국), 기당미술관 초대전(서귀포) 등 개인전 다수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종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맛집**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